

국민소득 증대 조건

* 이 자료는 아오키마시히코(青木昌彦) 스탠포드대학 명예교수가 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: 2015년 재생의 기점으로 ('14.1.5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통일적 성장이론, 지속적 성장에 유익한 시사점 제공
- 인적 투자비용 증대에 따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
- 여성·청년·외국인노동자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

□ 한·중·일의 1인당 GDP 증가 요인

- 과거 70년간 동아시아에서 일본(1950-1960), 한국(1970-1980), 중국(1980-현재) 순으로 1인당 GDP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요인으로 2가지를 들 수 있음
- 첫 번째 요인은 쿠즈네츠효과*임
 - *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감소한다는 이론
 - 농업과 공업 간에 일본과 중국은 5배, 일본과 한국은 3배 이상의 1인당 노동생산성 격차가 존재
 -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급속한 고용 이동이 단기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고도성장이 실현
- 두 번째 요인은 베이비붐에 의한 인구배당효과임
 -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, 한국은 6.25전쟁 이후, 중국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이후 탄생한 베이비 세대들이 생산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1인당 GDP 성장에 기여
-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은 불가역적(바꿀 수 없는 상황)인 과정임
 - 일본도 한국도 농업고용인구의 비율이 20% 이하로 되면 쿠즈네츠효과가 소멸되어 고도성장이 종료되는데, 중국도 일부 연안은 20%에 달하고 있음

- 쿠즈네츠효과가 소멸되면, 1인당 GDP 성장은 제2차, 3차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존하게 되며, 그것은 다음 2가지 요인으로 분해
 - 첫째, 1인당 노동자에 대한 자본장비(자본장비율)의 증가
 - 둘째, 인적자본의 축적과 경제조직의 제도적인 혁신임(TFP:총요소생산성)
- 인적·조직적 요인에 의한 보완 없이 물적 자본의 양적확대만으로는 그 생산성의 기여도는 점차 저하됨(자본의 수확체감법칙)
 - 일본은 1970-80년대의 완만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혁신적 요인에 크게 의존

□ 1인당 GDP 성장의 환경변화

- 1인당 GDP성장의 환경은 2가지 큰 변화가 발생
- 첫째는 인적자본투자가 아동의 교육비와 양육을 위한 노력과 시간 등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임
 -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는 기술, 지식이 경제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투입되는 이른바 내생적 경제성장 국면에서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저하되는데, 성장에 관한 통일적 접근에서는 이를 인구적 전이라고 함
 - 인구적 전이는 베이비 세대들의 퇴직과 더불어, 노동인구의 상대적 비율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특징되는 포스트 인구적 전이 국면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함
- 둘째는 일본 특유의 요인으로, 1970-80년대 제도혁신에는 생애고용과 기업집단이 라는 제도와 관행의 틀 속에서 구축된 장기신뢰관계에 기초한 암묵지*를 공유하는 것이 비교우위의 한 요소였음
 - * 암묵지는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함으로써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지만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,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말함
 - 그러나 1980년대부터 세계적인 정보혁명으로 암묵지를 대체하는 데이터해석 기술이 보급

□ 1인당 GDP의 성장 조건

- 1인당 GDP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? 이와 관련하여, 몇 가지 논점을 제시

① 여성의 노동참여율 증대

- 노동참여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여성참여율을 높이고, 연장자의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임

②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

- 생산성 향상에 잠재적으로 기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임
 - 저출산으로 학생이 줄고 있는 대학이 아시아의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, 일본의 언어, 관습, 문화를 익힌 인적자본을 양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임
 - 외국인 공포증의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, 1인당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임
 -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조정과 저임금 노동을 한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상 외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거시적으로 노동참가율 저하라는 부하가 걸릴 뿐이며, 경직된 연공서열에 의존하는 경영은 포스트 인구적 전이의 시대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

③ 인적자본 투자에 의한 조직과 기술의 혁신

- 인적자본 투자에 기초한 조직과 기술의 혁신, 정보기술과 전통적인 정교한 협동을 결합시키는 팀워크가 열쇠임
 - 다양한 인적자본 형성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혁도 필요

④ 세대 간 노하우 결합

- 도시집중 현상에도 포스트 인구적 전이의 움직임이 투영되고 있음

- 관광산업, 유기농업, 정보·교통인프라가 가능한 지역분산형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로부터 환류된 신세대의 참신한 시장개척력·실행력과, 지방의 연장자가 가진 전통적인 노하우가 결합될 때, 경제성장의 새로운 국면에 대응한 지방의 재변영이 가능함

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

- 포스트 인구적 전이의 선두를 달리는 일본에 긴급히 요구되는 것은 세대 간 합의가 성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임
- 토마 피케티 교수는(파리 경제대학) ‘21세기 자본’에서 자본수익율의 r 이 경제성장을 g 를 상회하게 되면 금융자본의 소유자와 다른 경제주체들간 부의 분배 격차가 확대된다고 주장
- 그러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연금기금과 사회보장기금을 통하여 근로소득자들도 금융수익의 분배에 참가할 수 있으면, 비윤리적이고 방만한 격차 확대는 억제 가능함
- 한편으로 충분히 자활할 수 있는 고령자에 대한 공적연금 지급폐지 등도 고려할 만함
- 포스트 인구적 전이 국면에서는 제도의 디자인을 둘러싸고 신·구 세대를 망라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. 끝.